



지난 26일 오후 광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찬호 제4대 남광회 회장 취임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매리기자

“살기 좋은 고장 남구 만들기 힘쓰겠다”

마찬호 제4대 남광회 회장 취임...감사·추대패 전달

“소통 통한 지역 성장 도모”...나종천 제3대 회장 이임

“광주 남구의 성장과 남광회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마찬호(55·사진) 제4대 남광회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광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남구 발전 및 회원 간 화합 도모’를 다짐했다.

남광회는 남구 관내 기관·단체장, 관변단체장, 기업체장 등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과 협조 강화를 위해 지난 1995년 5월 처음 설립됐다.

취임식에는 나종천 제3대 남광회 회장, 김병내 남구청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김남근 광주문화방송주대표와 회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행사, 개회, 감사패 전달 및 이임사, 추대패 전달 및 취임사, 축사 등이 이뤄졌다.

제4대 남광회 회장 추대패를 받은 마찬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람들은 평생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남광회 회장으로서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열심히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는 백운광장엔 주민들의 먹거리·볼거리를 위한 스트리트 푸드존과 푸른길 브릿

지가 조성됐으며 체육문화 공간으로는 진월복합운동장과 반다비체육센터가 주민 건강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며 “무등의 기상 속에 터를 잡아 총·효를 지켜온 옛 선현들의 일이 곳곳에 배어있는 남구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제4대 임원단은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열어 남구의 발전과 남광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허정 고문, 김명국 수석부회장, 김태곤 사무총장, 박혁규 재무총무국장 등 제4대 남광회 임원진의 소개가 이어졌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구의 단체장 및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남구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인 남광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가길 바란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회원들과 손을 잡고 남구 발전을 위해 단체를 잘 이끌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 앞서 색소폰 앙상블 반율이 흥겨운 연주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개회식 후 나종천 회장과 김명국 사무총장 등 제3대 집행부 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남광회는 두 전 임원에게 단체의 발전과 회원 간 소통·화합에 기여한 공로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와 함께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나종천 제3대 남광회 회장은 이임사에서 “남광회는 남구에 있는 기관·단체장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며 “코로나19 시기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구와 남구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여기 계신 모든 회원들이 단체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윤풍식 국민산업 회장, 백혈병소아암 환아 후원

윤풍식(사진 오른쪽) ㈜국민·국민산업 회장이 지난 26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이사장 최영준·사진 가운데)에 백혈병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윤 회장은 이번 기부를 포함 5년 연속 1천만원 원을 기부, 현재까지 총 5천만원을 후원했다. 성금 기부식에는 윤풍식 회장, 손세현(사진 왼쪽) 국민산업 대표이사, 최영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풍식 회장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소아암 환아들이 하루속히 쾌차해 가족들과 함께 다시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기



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후원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준 이사장은 “고귀한 뜻을 잘 전달해 환아와 그 가족들이 치료에 전념,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은솔기자

전남도,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우수상

전남도는 28일 “이날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 국내 지역 축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축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축제 전문 전시회로,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73개 지자체와 4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방문객 5만여명이 다녀갔다.

전남도는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영암군, 함평군과 홍보관을 공동 운영했다. 명랑대춤축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비롯해 전남의 다양한 지역축제와 함께 전남 관광상품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5개 참여 시·군과 합동으로 전남관광 스탠딩판넬, 톨렛게임, 서포드 테이블 걸림, 축제 영상 상영 등 관람객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홍보활동을 펼쳐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 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계약심사 연찬회·지역제품 홍보관 운영

전남도는 지난 26일까지 이틀간 나주 증흥골 드스파리조트에서 도·시군 공무원, 용역·시공회사, 건설 자재 생산기업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계약심사 연찬회”를 갖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 전시관을 운영했다.

연찬회는 2008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 제도의 축적된 기법을 공유하고 최근 공사원가산정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계약심사 연찬회 개최 시 지역 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59억원의 자재 구매가 이뤄졌다. 올해도 ‘도내 제품 홍보 전시관’ 설치를 통해 지



역에서 생산되는 50개의 우수 제품 구매를 담당하는 연찬회 참석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양시원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어린이날 맞아 마술사 변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오는 5월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최근 지한유치원을 방문, 유아들에게 깜찍 마술공연을 선보였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날 메시지 영상 제작의 하나로 기획됐다. 유아 교육감은 마술사 복장을 한 후 지한유치원 유아 10명에게 “교육감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재미난 마술을 보여줄게요”라고 말하며 마술을 놀이 후 간단한 마술 공연을 선보였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축



하하며 행복 가득한 어린이날 보내세요”라며 아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대기자

동신대 태권도학과, 대학선수권 11개 메달 휩쓸어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제5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등 11개 메달을 휩쓸며 대학태권도 신흥 강호로 떠올랐다.

28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주관으로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겨루기 종목에서 금 4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하고 조별로 진행된 품새 종목 개인전에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를 따냈다.

특히 겨루기 부문에서 남자 최우수선수상 이성훈(1학년)과 여자 최우수선수상 조희연(3학



년), 남녀 최우수지도자상 김소임 코치까지 수상해 주목받았다. /김대기자

광주소방, 4월 우수 소방인 강혜원·김정민씨 표창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6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서 4월 광주소방을 빛낸 ‘우수 소방인’으로 강혜원 소방경과 김정민 소방장 등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소방행정 분야에서 선정된 소방학교 강혜원 소방경은 전국소방공무원 강의 경연대회 지도와 고품질의 소방교육 설계로, 서부소방서 김정민 소방장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과 직원 근무 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각각 인정 받아 ‘우수 소방인’으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포상금 및 포상휴가, 광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박선경기자

제24대 광주·전남여의사회장에 오영현 보라여성의원 원장 선출



제24대 광주·전남여의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오영현(사진) 보라여성의원 원장이 선출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여의사회의는 지난 25일 제24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영현 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정했다.

6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여자의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 아동들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 의료전문가 단체다.

오영현 광주전남여의사회장은 “한국여자의사회는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참된 의사, 현명한 여성, 건강사회의 지도자를 겸한 여자의사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2년간 회장으로서 임원들과 회원 친목·학술 발전·의료 봉사 등 사회적 기여와 여의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회기자



보성경찰, 수사파트너십 포럼 발대식

보성경찰서는 “최근 4층 경찰서 보경마루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사파트너십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수사파트너십 포럼 세부 운영 계획·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회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보성경찰서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은 지역 협력단체·마을이장·자영업자·회사원 등 주민 21명으로 구성됐다.

양백승 경찰서장은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들이 범죄 피해를 지역에서 조기 발견하고 압수범죄 등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참여지원을 통해 보성군민에게 안전감을 주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영암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영암경찰서는 28일 “지난 26일 경찰서 2층 남주출에서 도감사 주지 수관 스탠딩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재물손괴와 절도로 형사 입건된 2건을 심사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즉결심판 처분토록 결정했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인사

광주 북구 ◇5급 승진·전보 ▲문흥2동장 양원춘 ▲토지정보과장 김미정

모임

▲2024년 제1차 이사회의 및 임시 개최(사단법인 한국대나무발전협회 회장 김일태)=5월1일(수) 10시30분 덕인관.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112 1, 061-381-7881 (사무국장 장광호 010-7169-3367).